



위안부 협상 타결...담양 광예남 할머니의 심정은

# “나쁜 놈, 나쁜 놈...” 한결같은 외침만

취직에 속아 중국 끌려가...해방후에도 고향 땅 못밟아  
60년만에 담양으로 돌아왔지만 요양병원서 투병생활

◀ 폐암과 세포암 등으로 담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투병중인 위안부 피해자 광예남(90) 할머니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듣고 ‘일본인은 나쁜놈’이라는 말로 심정을 대변했다. /담양=김진수기자 jeans@

외조카 “사과문 대독이 아니라 직접 사죄하길 바랐는데...”

시민단체 “미흡한 타결...피해자 염원 외면한 외교적 담합”

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최대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타결을 이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광예남(90) 할머니는 28일 광주일보 취재진과 만나 “(일본인은) 나쁜놈”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담양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는 광 할머니는 취재진을 보자마자 손을 꼭 잡으면서 침대 한 칸을 내줬다.

광 할머니는 오랜 중국 생활로 인해 중국말과 한국말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힘들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전했다. “일본인은 나쁜놈”이라는 말로 모든 답을 대신했다.

광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외조카 이관로(59)씨는 “이미 90세를 넘기신 이모님이

인데 와서 무슨 미련이 있으시겠느냐”라며 “이모님이 바라는 것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죄였는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과문 대독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직접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나 소녀상 앞에서 사죄하기를 바랐는데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며 “법적 책임과 배상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동안 계속된 일본 언론 보도와도 다른 내용들이 많아 정부의 의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광 할머니는 1944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해방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안휘성 숙주에서 60년간 머물다가 지난 2004년에야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왔다. 광 할머니는 최근 폐암과 세포암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시민단체들도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남지역의 유일한 위안부 피해자 모임인 ‘공점업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해남나미’ 이명숙 대표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10억엔은 할머니들이 그토록 요구해온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은 한치도 타협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번 합의를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과 여론, 언론이 연대해 국가가 다

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군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아베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내각 총리로서 직접 사과해야 함에도 대독에 그쳤으며 사과의 대상도 너무 모호하다”고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어 “합의 내용이 되돌고 되돌아가지 말라 뒤버린 굴욕적 외교 행태”라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고통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 “양동시장 화재 예방책 조속히 마련하세요”

윤장현 시장, 현장 점검 지시

윤장현 광주시장은 28일 최근 화재가 발생한 양동시장(광주일보 28일자 6면 보도)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책 강화를 지시했다.

윤 시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는 특성상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어 “광주시내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특별한 화재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상인들이 모두 철수하는 심야 시간대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용소방대와 공조해 매일 심야에 2차 이상 순찰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시장은 아울러 전기·가스·도로 위주저문제 등과 관련해 시민안전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완도서 60대 해녀 바닷속 그물에 걸려 숨져

남편과 작업하다 참변

물결에 나섰던 60대 해녀가 숨진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 중이다.

28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47분께 완도군 신지면 신지항 인근 500m 해상에서 ‘물결에 나선 아내가 물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A(56)씨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122구조대는 이날 오후 4시54분께 인근 바닷속에서 숨

진채 그물에 걸려 있는 A씨의 아내 B(60)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30년 이상 해녀로 활동해온 B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남편과 함께 작업에 나섰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B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재 완도지역에는 모두 90여명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3년간 1900건 고발 건축사 실형 선고

광주지법, 무고 등 혐의 2년6개월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3년간 1900여건, 4000여명을 고발한 건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자 불만을 품고 다른 건축사 등을 사실 확인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8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 임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7~8월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업무대행자 지정이 필요 없는 등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없음에도 감리자 등이 이를 위조했다며 62회에 걸쳐 허위고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임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광주지법에 1543건(건축주 등 2471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0개 검찰청 합산 1953건(4001명)의 고발이 A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에 고발한 1543건 중 각하(32.6%), 혐의없음(26.3%) 처분된 사건이 과반수(58.9%)를 차지했으며, 다른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순천지청에서 약식기소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임씨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의 허위 작성 등 위법행위에 가담해 왔으면서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익신고를 내세워 수년간에 걸쳐 무려 1950여건의 고발을 했다”며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검찰 부패 전담수사 TF팀 내달초께 발족

대검 중앙수사부 역할을 대신할 검찰의 부패사건 전담 수사조직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박정식 검사장)와 법무부는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신설 조직을 조만간 발족하기로 하고 인력을 비롯한 세부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출발 시점은 다음 달 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단행될 고검 검사급 인사와 맞물린 사안이 때론다. 새 조직은 상설 기구가 아닌 태

스크포스(TF) 형식을 갖춘다. 과거 저축은행 비리나 최근 방위사업 비리처럼 전국 단위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때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치는 역할을 한다.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급 팀장 1명과 부장검사 1~2명 정도가 TF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 범죄정보 분석과 내사 업무를 할 검사의 수는 비상설 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상시 과검 규모는 5명 안팎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 한빛원전 방폐물 1000드럼 경주 이송 완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한빛원전 중·저준위방폐물 1000드럼 이송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수 제작한 전용 운반용기(컨테이너) 125개에 한빛원전 폐기물을 담아 전용 운반선인 ‘정정누리호’에 선적해 경주로 운반했다. 지난 19일부터 4일간 선

적한 뒤 한빛원전에서 월성원전 물양장까지 해상운송에 2일, 방폐물 하역·반입에 3일 등 모두 5일이 걸렸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내년부터 국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기반체계에 따라 매년 7000여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이송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

## 절도 수배자 차량 주변 기웃거리다 CCTV 포착 ‘쇠고랑’



○스프츠 토토에 빠져 절도 행각을 일삼던 20대 수배자가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차량 주변을 기웃거리다 경찰 CCTV 관제센터에 포착돼 쇠고랑.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28)씨는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한 건물 앞에 주차된 A(여·31)씨의 차량에서 현금 6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9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여관을 떠돌며 생활하던 이씨는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이씨가 차량 주변과 내부, 인근 원룸 창문을 살펴보는 장면을 수상히 여긴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b>7층</b> <b>상가건물 매매</b>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p><b>(7층) 건물 (사우나 건물)</b></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만, 용 7억)</p> <p><b>매가 15억 5천</b></p> <p><b>010-7384-7800</b></p>	<p><b>신축 상가원룸 매매</b>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b>(4층) 신축원룸</b></p> <p>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p> <p>4면 올 대리석 시공 신축 원룸 / 내부 깨끗 / 풀오피스</p> <p>(보 4천만, 월 500만, 용 1억2천만)</p> <p><b>매가 6억 7천만</b></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20만) → 매가 7억8천만 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p><b>010-6670-9800</b></p>	<p><b>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b>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p> <p>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주택) (토 81평, 건 30평) 압록역,성진강 부근 주택 추천 → 매가 5천만 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올수리 (용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5백,월50만) → 매가 8천5백만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월33만) → 매가 5천만 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비출구 3분 (용1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 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 ⑨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⑩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 4천, 월 520만) → 매가 6억8천만 ⑪ 커피숍 임대 (25평,1층 도로점) (시설비 4천만, 보 2천만 월 150만) → 매가 1억3천만</p> <p><b>010-6834-44800 / 010-6832-9700</b></p>	<p><b>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b></p> <p>1. 북구 오룡동 (토 500평,건 900평)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주택및사무실) 삼성전자 정문 앞, 공단및교육시설 단지 감정가 35억 → <b>최저가 19억8천만</b></p> <p>2. 남구 주월동 (토 206평,건 64.5평) ※ 남구청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정가 16억8천 → <b>최저가 11억8천만</b></p> <p>3. 광산구 박호동 (토300평,건150평) ※ 단층 영업소 식당,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4억 6천 → <b>최저가 4억 6천</b></p> <p>4. 서구 마복동 (토 342평,건 84평) (주유소) ※ 광주아울렛 뒷편, 투자적합 감정가 9억9천 → <b>최저가 6억9천</b></p> <p>5. 북구 중흥동 (토 84평,건 385평) (의료시설) ※ 광주역 남동쪽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번비 감정가 8억3천 → <b>최저가 5억8천만</b></p> <p>6. 광산구 서봉동 (토 40평,건 44평) ※ 송산 유원지 부근,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7천 2백 → <b>최저가 7천2백</b></p> <p>★ 직원 구함 ★ 부동산,경매 직원 구합니다 경매 입찰부터 매매,개발기획까지 함께 배우실분 모집합니다.</p>	<p><b>경매교육</b></p> <p>바로실천 교육등고 <b>수익창출가능</b></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b>경매물건 추천</b></p> <p>1. 남구 병림동 (토 207평,건333평) (근린시설) 감정가 9억9천 → <b>최저가 6억9천</b></p> <p>2.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 감정가 10억 → <b>최저가 6억</b></p> <p>3.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토12평,건90평) 감정가 6억9천 → <b>최저가 3억5천</b></p> <p>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p>
--	--	---	--	--